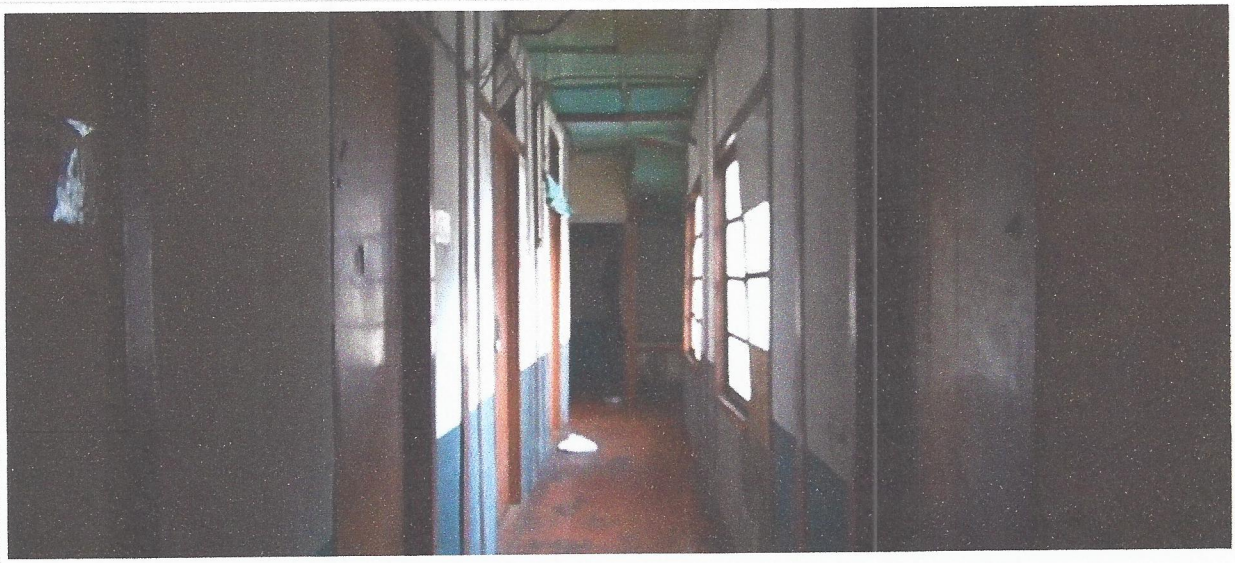
fun

fun

[직업의 세계] 대구 쪽방상담소 사람들

인터넷뉴스팀기자 2015-03-06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쪽방 사람들 마음의 문 열려고…"



평균 월세 15만원의 대구 향촌동 쪽방. 현재 대구에는 약 850명의 쪽방 주민이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방세가 밀리면 언제 노숙으로 내몰릴지 모른다.

대구쪽방상담소가 있는 서구 평리동 '희망드림센터' 1층에 자리한 '따신밥한그릇'.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쪽방주민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인다.

노숙인복지는 가장 후발주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왜 그러나"
쪽방상담소 사회복지사가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자신의 가족

"행복한 가정은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나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흔히 성공의 이유를 한 가지 요소에서 찾으려 하지만 실제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많은 실패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다. 북부정류장, 달성공원, 대구역 뒤편, 동대구역 주변…. 이곳의 오래된 여인숙과 여관에는 850여 명의 쪽방주민이 살고 있고, 850여 가지 절망의 이유가 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피해가지 못한 것일까. 아침 9시부터 때로는 밤 9시 너머까지, 꼬박 12시간 이상 그 이야기들을 듣는다.

이곳은 대구쪽방상담소. 850여 가지의 불행과 직면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작은 사진은 2001년 대구쪽방상담소가 개소할 때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쪽방주민을 위해 일해온 장민철 소장.

◆ 1층 '따신밥한그릇'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오전 10시. 대구 서구 평리동 '희망드림센터' 건물 1층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난다. 중식당 주방에서 일하다 이곳으로 온 지 4년째라는 주방장은 한식은 가짓수가 많아 힘들다면서도 4~5가지의 반찬을 뚝딱뚝딱 만들어 낸다.

"우리 집은 매일매일 반찬이 달라요. 저녁 되면 남는 음식이 없으니까."

보통은 그만큼 식당이 잘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선 그만큼 '먹을 입'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장사하고 남는 음식은 쪽방 아저씨들한테 가요. 식당 수익금도 모두 쪽방으로 올라갑니다."

배달 담당 아저씨는 카메라가 들어오자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식당 출입문 환기를 시키다가도 "여기는 또 마을기업이니까 단순 식당이 아니지", 식당 바닥을 쓸다가도 "같은 일을 해도 보람이 있으니까", 그릇을 정리하다가도 "이 식당이 만들어진 게 다 우리 아저씨들 도우려고" 이런 짤막짤막한 말을, 일하는 틈틈이 툭툭 던지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얼굴에 슬며시 깃드는 웃음을 보았다.

"그분도 쪽방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좁은 방에 틀어박혀서 죽을 날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방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문도 안 열었는데 다음에 또 두드리고 그다음에 또 두드리고 하니까 어느 날부턴가는 '이 사람들이 문 두드릴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 문이 열린 겁니다."

나중에 장민철 소장(경력 15년, 대구쪽방상담소)이 들려준 얘기다. 그러면서 쪽방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보여준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 문을 열면 방안이 한눈에 보인다. 3㎡ 남짓한 그 방안에 부엌도 있고, 빨래도 널려있고, 이부자리며 온갖 세간이 다 들어있다. 방이 하도 좁아서 어디 감출 데도 없는 내 삶의 남루한 모습을 방문을 여는 순간 고스란히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쪽방에서 원룸으로 이사도 하고, 또 일도 하면서 나중에는 폴리텍대학에 들어가서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도 땄어요. 당시 과 학생 70명 중에 4~5명만 그 시험에 합격했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이가 많으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신밥한그릇' 식당 이야기를 하면서 배달 일인데 괜찮겠느냐고…."

괜찮고말고! 따신 밥 한 그릇. 그 한 그릇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히려 고맙다 했다. 이제 이 식당이 잘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쪽방 문을 열고 나와 신나게 음식 배달을 같이 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 2층 '쪽방상담소'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만날 술 퍼마시고 깽판이나 칠 줄 알지, 왜 열심히 일할 생각들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돼" "요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노. 사지육신 멀쩡하면 어디 가서 뭘 하든 저 하나 못 먹고 살겠나?" "자꾸 도와줘 버릇하면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야. 그게 다 게을러서 그래."

생필품이나 후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다니다 보면 쪽방상담소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인력시장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일거리를 못 얻은 거죠. 방세가 밀려 있으니까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바로 집에도 못 들어가겠고, 아침부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날은 춥고,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게 되고, 근처 공원을 가게 되고…."

바쁘게 출근하는 주민들 눈에는 또다시 '쯧쯧, 저 아저씨 또 아침부터 술이나 퍼마시고 공원 벤치에 드러누워 자네!'의 풍경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쪽방상담소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절망에 빠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쪽방 주민도 아니고, 노숙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성공한 시민도 아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다.

"2001년 대구쪽방상담소가 개소할 때 간사로 첫 출근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쟤가 몇 달 저러다가 곧 그만두겠지' 생각했대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환경이 다 열악하지만 그중에서도 노숙인 복지는 가장 후발주자거든요. 월급도 첫 월급이 구십 몇 만 원이었어요. 개소 초기니까 일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학원까지 멀쩡하게 졸업한 아들이 왜 그 돈 받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물정 모르고 착하기만 한 아들이 아까웠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고 사느냐, 도와주는 것을 그들이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만 왜 용을 쓰느냐,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노숙인에 대한 부모님의 미움과 원망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만큼 컸다고 한다.

얘기를 듣고 보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세월이 벌써 15년이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노숙인 전체로 보자면 그 수도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죠."

특히 5년쯤 됐을 때는 번아웃 증후군(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런데 차츰차츰 부모님께서 노숙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노숙자'로 뭉뚱그려 보면 제자리걸음인 것처럼 보여도 노숙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달라진 분이 많죠. 15년 전에 만났던 아저씨가 아직도 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 간사!' 하면서 찾아오시지만, 저를 찾아온다는 건 나름대로 자기 삶에 당당해지셨다는 얘기잖아요. 취직했다면서 붕어빵도 사주시고 차도 한잔 사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시소게임 같다. 내가 지치면 어느새 상대가 힘을 실어주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 누군가의 삶이 변화한다.

◆ 3~4층 '희망하우스' 럭키세븐 주민이야기

쪽방상담소 건물의 3층과 4층에는 쪽방주민 7명이 살고 있다. 이름하여 '희망하우스'다. 이곳은 쪽방 주민이 원룸이나 공공주택으로 옮겨가기 위해 보증금을 모으면서 머무는 '중간주택'이다. 쪽방 월세가 평균 15만원이라면 이곳에서는 20만원을 내야 하는데, 쪽방상담소에서는 이 중 5만원을 매달 적립하여 보증금 100만원으로 되돌려준다. 보증금 100

만원만 모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7명의 아저씨 중 현재까지 30만원의 적립금을 모은 아저씨가 가장 먼저 이사를 나갈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주거상향'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처럼.

발전된 삶, 잘 사는 삶은 그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30~40평대 고급 아파트와 비교할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것이면 성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치솟는 전세가에 한동안 짜증이 났던 나도 그들의 희망을 위해 쪽방 후원금이나 좀 내야겠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덧붙인다. 대구쪽방상담소 자원봉사 및 후원문의 (053)356-3494

글=이은임 방송작가 sophia9241@naver.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 대구·경북 最古의 역사, 영남일보와 함께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세요! 구독신청 ▸▸